

## 1. 연구의 개요

### 1) 연구 배경

- 엔지니어링산업은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며 신성장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집약산업으로, 2000년대 이후 연평균 15% (2010년 세계시장 기준)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유망 분야임
- 이에 따라 중앙정부도 관련분야에 대규모 R&D 투자, 엔지니어링 Complex 조성 등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이 산업에 대해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음
- 특히 제조업 성장의 한계, 서비스업 고도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서울시는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인 엔지니어링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### 2) 연구 목적

- 서울시 엔지니어링산업의 실태 파악, 특히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역량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
- 이에 따라 1) 엔지니어링산업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역량을 파악하고, 2) 역량을 집중해야 할 엔지니어링분야를 도출하며, 3) 엔지니어링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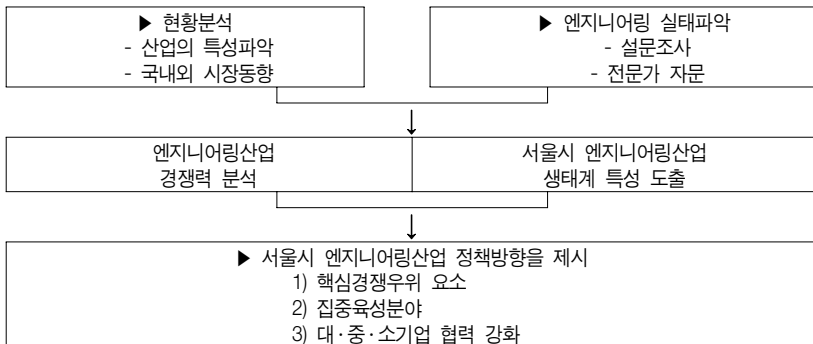
### 3) 연구의 내용

- 서울시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고, 경쟁우위 요소를 분석함
- 경쟁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서울시 역량을 집중해야 할 엔지니어링분야를 도출함
-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의 핵심역량을 도출함
- 대기업(EPC Contractor)<sup>1)</sup>과 중소엔지니어링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요건을 모색함
- 서울시에 건전한 엔지니어링산업의 생태계 환경이 조성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함

### 4) 연구의 방법

- 문헌연구
- 설문조사(중소 엔지니어링 대상)
- 현장방문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(Focus Group Interview; FGI)

### 5) 연구체계



1) EPC란 Engineering(설계), Procurement(구매), Construction(시공)의 약자로, 사업자가 설계, 자재구매, 그리고 건설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기업을 EPC Contractor 혹은 EPC 기업이라고 칭함

## 2. 서울시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종합

### 1) 경쟁력 종합평가

- 서울의 엔지니어링산업은 경쟁력 구성요소 대부분에서 선진국, 선진기업에 비해 열위를 나타냄
  - －서울 엔지니어링산업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의 경쟁력은 선진기업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임
  - －반면에 상당수의 대기업(EPC Contractor)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기업들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
- 투입자원은 인력, 연구개발투자 항목 모두 경쟁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
  - －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‘인력’ 자원은 양적·질적 측면에서 선진기업에 모두 뒤지고 있음
  - －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비도 절대규모 면에서 선진기업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상황
  - －다만, 매년 학사 이상 양질의 인력을 풍부하게 배출하고 있다는 것, 상대적으로 설계인력의 연령대가 낮은 것 등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
- 프로세스는 대부분의 항목이 선진기업 대비 경쟁열위에 있으며, 특히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능력이 크게 뒤지고 있음
  - －대다수의 중소엔지니어링사업체들은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, 기술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도 부족
  - －서울소재 중소엔지니어링사업체들의 엔지니어링체계 역량은 선진기업 대비 50~60%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
  - －서울소재 중소엔지니어링사업체들의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으나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
  - －글로벌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마케팅능력은 타 요소에 비해 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

- 외부성은 투입자원, 프로세스 등 타 경쟁력 구성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등한 여건에서 해외 선진국과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  - － 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연관분야인 금융서비스부문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금융 제공으로 업계의 해외사업 수주를 지원
  - －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업계를 지원

## 2) 시사점

- 경쟁역량 증대를 위한 중소엔지니어링사업체의 자구노력이 부족함
  - －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58% 이상이며, 원천기술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발굴을 위한 프로세스(활동)가 없는 기업이 87%에 이름
  - － 연구개발투자를 안 하고 있는 기업이 52%에 달함
  - － 역량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활발한 기업이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
-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
  - － 학사 이상의 우수인력이 매년 풍부하게 배출되고 있어 교육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체계적인 훈련방식이 적용된다면 경쟁력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  - － 선진기업들은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
- 엔지니어링 역량 평가에 대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시각차가 존재함
  - － 대기업에서 평가한 서울소재 업체들의 엔지니어링 역량은 평균 51점에 불과함
- 대·중·소기업 간 협력체계의 중요성 인식에 비해 실행은 미흡한 수준임
  - － 대·중·소기업 간 협력에 대하여 대규모 엔지니어링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체들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

-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활성화 필요
- 서울시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활용 극대화를 모색해야 함
  - 서울시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을 중심으로 한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기업 대비 대부분의 요소가 경쟁열위에 있는 것이 현실
  -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든 요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성 잠재력이 있고 활용 가능한 요소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서울시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의 역량 제고를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
  - 다수의 국내 엔지니어링 대기업들은 글로벌시장에서 선진기업과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  - 서울시 중소엔지니어링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

### 3. 역량을 집중해야 할 엔지니어링 사업 분야 선정

#### 1) 선정방식

- 역량집중 사업 분야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활용
  - 국내 및 해외 엔지니어링산업의 사업 분야별 실태, 동향 및 전망 등의 분석 자료
  - 사업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
  - 사업체대상 설문 및 인터뷰 내용
- 취합한 정보를 활용한 FGI(Focus Group Interview)를 실시해서 역량집중 사업 분야를 선정

- FGI 대상은 국내 엔지니어링 대기업의 해외 프로젝트(사업) 수행경험이 풍부한 임원급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들을 주축으로 구성
- 사업 분야 선정을 위해 시장매력도와 역량의 두 가지 기준을 고려
- FGI를 통한 사업 분야 선정에는 업계(대기업)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었고,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음

## 2) 사업 분야별 평가

- 평가대상 사업 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활동에 의한 분류, 업계의 사업조직 현황 등을 감안하였으며, 인터뷰 대상자들의 의견을 모아 재구성
- 다수의 사업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, 글로벌시장에서 경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사업 분야를 선정

### (1) 인프라

- 시장매력도 : 상
  - 시장규모, 성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
  - 성장성이 높은 만큼 대부분의 엔지니어링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평가
- 역량 : 상
  - 서울소재 엔지니어링사업체들의 다수가 인프라 관련 분야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경험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으로 평가

### (2) 발전

- 시장매력도 : 상
  - 시장규모는 중국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
  - 발전사업 분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, 경험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시장 참여는 용이하지 않음

○역량 : 중

- 발전사업 분야에서 서울소재 엔지니어링사업체들의 역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
  - 참여업체수, 인력 등 보유자원 측면에서 선진업체에 뒤지며, 수행경험도 부족하여 평가점수가 높지 않음

(3) 유향

○시장매력도 : 상

- 오일머니의 위세를 발휘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물량을 감안하여 시장규모, 성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
- 전통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사업 분야이며, 이 같은 시장특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

○역량 : 중

- 국내 대기업(EPC Contractor)들은 유향사업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- 그러나 서울소재 중소엔지니어링사업체들은 참여업체의 절대수도 부족하며 수행경험도 부족

(4) 산업

○시장매력도 : 중

- 시장규모, 성장성 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
- 작은 규모의 개별분야에서 특화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정도 측면에서 매력도는 낮게 평가

○역량 : 상

- 산업관련 사업분야에 다수의 사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수행경험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으로 평가

### (5) 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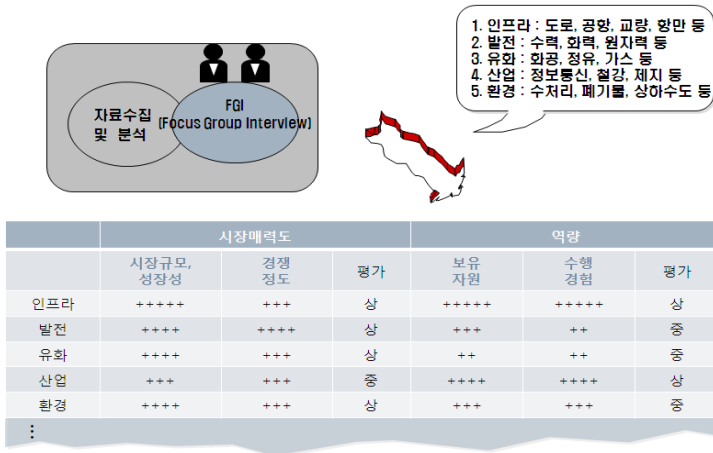
○ 시장매력도 : 상

— 시장규모, 성장성은 높게 평가

—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

○ 역량 : 중

— 환경사업 분야에서 서울소재 엔지니어링사업체들의 역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



### 3) 종합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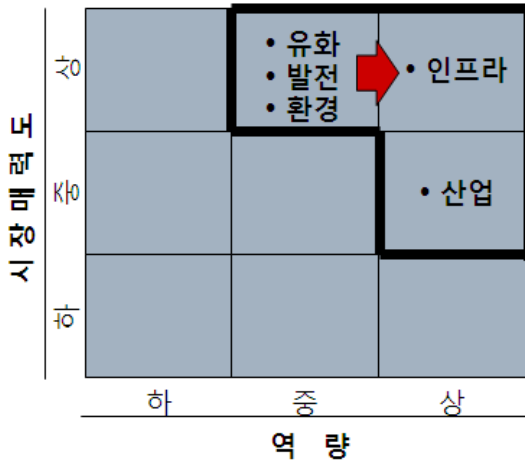
○ 앞서 살펴본 사업들의 평가를 토대로, 서울시 엔지니어링산업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업 분야를 선정

— 인프라는 시장매력도와 역량 모두 ‘상’의 평가를 받아 엔지니어링 사업 분야 중 글로벌시장에서 경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

— 유허, 발전, 환경 사업의 경우 시장매력도는 충분하지만 현재 서울소재 사업체들의 역량은 해외 선진업체들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



—산업분야의 경우 시장매력도는 ‘중’이지만 서울소재 사업체들의 역량은 ‘상’으로 평가받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


#### 4. 서울시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 방향

○ 정책기본방향 수립을 위해 두 가지의 정책목표를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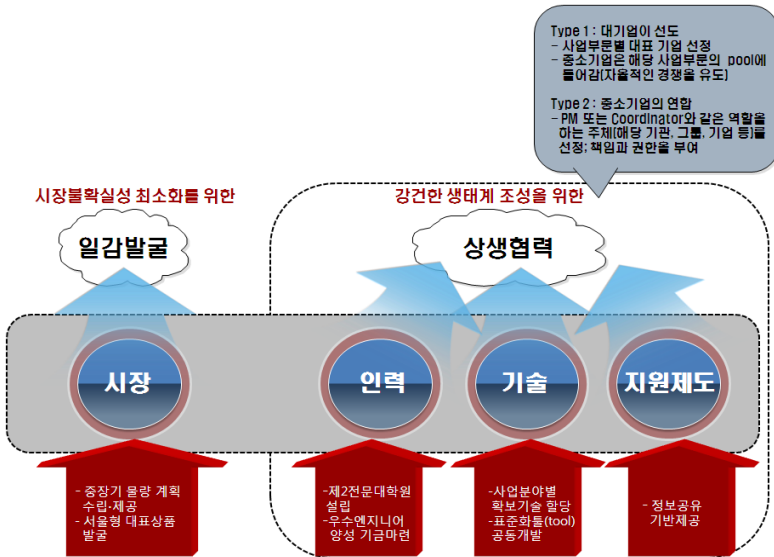
— 시장불확실성 최소화

- 서울소재 엔지니어링사업체들이 사업수행 과정의 애로요인 중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
-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상 시장 및 경기상황에 따라 사업물량이 증감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
- 따라서 엔지니어링업계는 안정적인 물량확보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

— 건강한 생태계 조성

- 서울시 엔지니어링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각각의 개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함

-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선진국 또는 선진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



## 1) 일감발굴

○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감 발굴 기반 마련

- 서울소재 중소엔지니어링사업체들이 경기변화, 외부환경요인 등에 따른 일감 변동영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
- 업체는 정부 또는 서울시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부문 사업 물량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 발굴에 동참하는 능동적·적극적인 대응 필요

○서울시는 시에서 발주할 중장기 물량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에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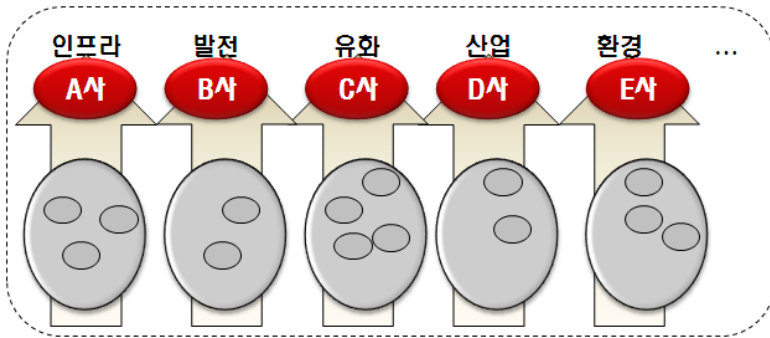
- 단기 물량계획으로 일시적인 임기응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, 향후 5년~10년 사이의 중장기 엔지니어링사업과 연관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

- 서울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일감의 예측,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대비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줌
- 서울형 엔지니어링 대표상품 발굴(개발) 사업 추진
  -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서울형 엔지니어링 상품을 발굴
  -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뿐만이 아니라, 서울시만의 자체적인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

## 2) 상생협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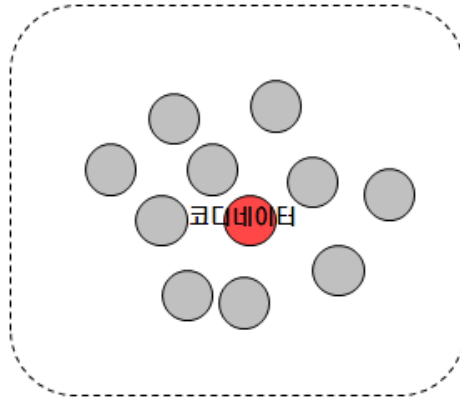
- 강건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는 엔지니어링업계 관련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야 함
  - 선진국 또는 선진기업들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협력방안을 적극 모색
  - 또한 중소엔지니어링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엔지니어링 대기업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유도해야 함
  - 상생협력의 형태로 대기업 선도(Type 1)와 중소기업 연합(Type 2)의 두 가지 방식을 제안
- Type 1 : 대기업이 선도
  -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형태로, 특히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서 활용
    - 대다수의 서울소재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한 협력 형태
  - 서울시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각 사업 분야별로 소그룹(Subgroup)을 구성하고 소그룹별 대표기업을 선정
    - 중소엔지니어링기업들은 자사의 강점사업 또는 관심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소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하며, 소그룹 내에서는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

- 소그룹별로 대기업이 선도하고 관련 중소엔지니어링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실행경험과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
- 이 형태는 대·중·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나, 하도급 및 계약관계에서 법·제도적 보호 장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

#### ○Type 2 : 중소기업의 연합

- 중소엔지니어링기업들이 연합해서 대규모 그룹 형태로 ‘몸집’을 키움으로써 경쟁력 제고, 협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협력 방식
- 협력 효율을 극대화하고 연합 모임의 체계적인 운영 등을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주체(기업, 해당기관, 전문인력 등)를 선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
- 이 협력형태는 조직을 리드할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
  - 코디네이터는 연합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 이견 조정, 이윤배분문제 등에 대응해야 함



## 5. 서울시 엔지니어링산업의 세부 정책방향

### 1) 일감발굴

#### (1) 중장기 물량계획 수립 및 제공

- 서울시는 단기를 포함한 중장기 엔지니어링 관련 발주물량 제공계획을 작성하여 업계에 제공함
  - －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, 업계는 물량(일감)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
  - －발주물량계획 수립은 용이한 작업이 아니지만 엔지니어링업계에 대강의 물량 규모, 사업의 방향성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
  - －발주물량 계획은 필요시 매년 수정사항을 업데이트하여 업계에 제공
- 서울시의 중장기 발주물량계획 수립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분야를 예시
  - －메가시티 특성 활용
    - ☞ 지하공간 개발, 도로교통, 홍수대비(배수)시설 등
  - －녹색성장 사업
    - ☞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보급시설 건립,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

—복지와 연계

☞ 노인, 노약자 관련 시설, 병원, 요양시설, 아동관련시설

## (2) 서울형 엔지니어링 대표상품 발굴(개발) 사업 추진

- 서울이 메가시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축적해온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경험을 살려 서울형 엔지니어링 대표상품을 발굴
  - 거대도시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심이면서 ‘국가의 축소판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으며, 이는 엔지니어링의 다양한 사업으로 개발 가능한 자원
- 대표상품 발굴을 위한 산·관·학 공동연구프로젝트를 구상
  - 서울시, 엔지니어링업계,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표상품 발굴 프로젝트를 구상
    - 가능성 있는 상품발굴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시행
- 대표상품대상으로 고려 가능한 분야 예시
  - 도심 재구축(renovation) 사업
    - 재개발, 뉴타운 건설, 재건축 등 도심 재구축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분야
  - 토양복원
    - 환경사업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토양복원 사업은 용산기지 이전과 맞물려 사업수행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 - 신도시 개발
    - 수도권 주변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풍부한 노하우 확보
  - 정보통신 관련
    - IT, 통신사업 등 정보통신 강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노하우를 사업화로 연결
  - 지하철 및 고속철 건설 등
    - 서울지하철 건설, 고속철 사업 등 교통 인프라의 사업화

## 2) 상생협력

- 상생협력의 2가지 형태는 인력, 기술, 지원제도의 세부정책별로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져 전개
  - － 우수 엔지니어 양성 기금마련과 기술 할당은 대기업이 선도하는 정책 (Type 1)에, 전문대학원 설립, 표준화툴 개발, 정보공유기반은 중소기업 연합 정책(Type 2)과 관련됨

분 야	세 부 정 책	Type 1	Type 2
인 력	제2의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 설립		√
	우수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기금 마련	√	
기 술	사업분야별 확보기술 할당	√	
	표준화툴(tool) 공동 개발 추진		√
지원제도	정보공유기반 제공		√

### (1) 인력

#### □ 제2의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 설립

- 서울(또는 수도권)에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 또는 전문인력 교육·훈련기능을 갖는 기관 설립을 고려
  - － 포스텍(포항공대)이 2011년에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을 유치하여 2012년부터 과정을 개설
    - 당초 전문대학원 형태로 인가받을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일반대학원으로 운영 중
  - －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의 서울(또는 수도권)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
    - 설문조사에서도 서울소재 중소엔지니어링사업체의 70%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, 대기업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
    -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체 분포비중,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(또는 수도권)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매우 높음

- 가칭 서울 엔지니어링 아카데미(College)를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
  - 사업분야, 전문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과정 개설
  - 실무경험이 풍부한 업계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
  -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영어 등 어학교육 포함
  - 해외 대학 또는 선진 엔지니어링업체와 협약해서 프로그램(과정, curriculum)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
- 서울시립대학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
  - 제2의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학원 형태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설치
  - 이 경우 업계 전문가와 함께 시립대학교의 교수진들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

#### □ 우수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기금 마련

- 엔지니어링분야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엔지니어링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
  - 앞서 제시했던 상생협력의 대기업 선도(Type 1) 형태에서 사업분야별 소그룹을 단위로 하여 해당 대기업 주도하에 기금을 마련
    - 최근 선진국 및 선진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을 강조하는 추세이므로 국내 엔지니어링 대기업들의 기부활성화를 유도
  - 기금을 활용하여 대학에 엔지니어링 특성화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

## (2) 기술

#### □ 사업분야별 확보기술 할당

- 역량을 집중해야 할 각각의 사업분야별로 확보코자 하는 기술을 할당하고, 엔지니어링 대기업이 주도하여 원천기술 또는 핵심기술을 개발



- 앞서 선정했던 서울시가 집중해야 할 사업분야에 대하여, 분야별 해당 대기업과 소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
- 해당 대기업은 원천기술 확보 등 기술력 증진을 위한 기술목록을 작성
- 서울소재 중소엔지니어링사업체들의 기술개발 활동 활성화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장(Arena)을 마련
- 대기업이 선도하는 사업부문별 소그룹 간의 경쟁을 통해 우수 특허와 라이선스 발굴의 장 마련

#### □ 표준화툴(tool) 공동 개발 추진

- 국내 대기업, 해외선진기업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서울소재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의 프로세스 표준화작업을 추진함
-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이 독자적으로 tool을 개발·확보하기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개발을 추진

### (3) 지원제도

#### □ 정보공유기반 제공

- 해외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중소엔지니어링사업체들을 위한 정보공유기반 제공
  - 중소엔지니어링사업체들의 해외마케팅 능력을 제고하고, 글로벌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외 현지정보 지원기능이 필요
  - 정부 기관에 축적되어 있는 풍부한 해외정보를 중소엔지니어링사업체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
- 한국인 해외지역 전문가 풀 구축 작업을 지원
  - 해외국가별로 해당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전문가, 과거에 활동했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가 풀을 구축
- 서울소재 중소엔지니어링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기술, 인력 등 유용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

- 엔지니어링대기업이 글로벌사업 추진 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 
서울소재(또는 국내)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  
재로 인하여 필요한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
-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소재(또는 국내)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의  
자사 PR정보를 모아놓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함